



▲지난 12일 고경면사무소 2층에서 개최된 고경산단 설명회장에서 P씨가 산단측 K씨에 의해 끌려나가고 있다.

지난 9월1일 MOU 체결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영천고경일반산단(이하 고경산단)이 지난 12일 고경면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 도중 “고경산단 직전 대표인 H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유인물이 배부되는 등 설명회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간담회는 토지 등 보상감정평가사와 일부 투자자들이 배석한 자리로 고경산단측 관계자가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설명하고 보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같은 소란으로 오후 3시경 시작된 설명회는 채 한 시간여 만에 어수선하게 끝났다. 이날 소란은 참석자 소개 후 현 부

지보상(미 보상) 규모와 과거 범정관리 등 경과상황 설명에 이어 감정평가사의 보상 설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설명회 시작 10여분이 지난 시점이다. “고경산단의 H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S씨 관계인 P씨가 앞자리에서 갑자기 설명회 도중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영천고경산단 H씨와 이사람(산단측 설명인 K모씨 지칭)들은 사기행각입니다”며 소리를 높이며 시작됐다. 하지만 P씨는 산단측 사람들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5~6명으로부터 곧바로 밖으로 끌려 나갔으며 설명회를 하는 내내 몸싸움과 함께 출입을 제지당했다. P씨는 설명회장 입구

고경산단 주민설명회 도중 ‘사기행각’ 소란

석씨측, “고경산단 황만수 65억 사기쳤다” 비토

산단측, “주식 100% 양도·양수계약으로 산단 방해” 주장

복도에서도 “고경산단 H씨가 65억 원을 사기해 현재 사기혐의로 재판 중이다”고 폭로하고 계속해서 10여분간 “주민 여러분 H씨가 사기행각을 하고 있으니 제가 배포한 유인물을 잘 보시고 남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며 복도를 높였다.

이에 반해 P씨를 가로막고 출입을 제한한 한 남성은 “나는 설명회를 들기 위해 온 주민이다”면서도 3~4명과 함께 힘으로 P씨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날 소란이 일자 설명회장 안에서 산단측 K모씨는 이같은 상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면서 “조금 전 저 친구(P씨 지칭)는 작년 3월15일 고경산단 법정관리 인수당시 S씨란 분이 고경산단에 투자금을 65억원 냈습니다”고 말문을 연 뒤 “H씨와 같이 하기로 하고 투자금 지분을 나누기로 했는데 석씨는 이 사업권을 샀다고 주장하고 H씨는 이 사업권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씨는 또 “H씨와 S씨는 이 사업권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두 사람은 주식 문제만으로 현재 씨우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또 K씨는 “현재 형사와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P씨는 설명회장 입구에서 언론에 발표된 고경산단 청약을 78.13%를 문제 삼았다. P씨는 “기자들은 영천시청이 자료를 주어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고 영천시청은 “고경산단측에서 주는 대로 언론에 내 보냈다고”고 했다면서 “영터리 청약율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장 안에서 주민들은 산단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용전리 일대 저수지의 농업용수 차단으로 인한 물 부족 심화, 인근 산의 아카시아나무 벌목으로 인한 양봉업 애로, 용전리 마을 뒷산을 사업부지에서 제외, 마을단위 피해보상요구 등 조모조목 요구사항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하여 산단측 K씨는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측과 상당한 협의가 된 사항이고 용전리 마을 뒷산은 날리지 않고 되살리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배석한 GS측에 양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산단측 K씨는 “주식 100% 양도·양수계약으로 현재 석씨가 끊임 없이 청약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도 저자들(S씨 등)이 방해하는 바람에 우리 산단이 어디와 분양계약을 했는지를 제가 숨기고 있을 정도다”면서 오히려 이들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산단 관련 H씨와 S씨의 분쟁에서 민사재판은 이날 1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사기혐의 형사 재판 2차 심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 K씨는 “총 사업부지 47만평 중 37만평은 이미 보상이 종료됐으며 10만평 정도가 현재 미 보상 중이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건의

영천시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에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3일 조남철 영천시 부시장은 기재부 조성철 총사업비관리과장을 비롯해 업무 담당자 등을 만나 영천관련 핵심 국비사업을 직접 설명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SOC예산에 대해 삭감, 일자리 및 복지예산 증액 등으로 정부 재정구조가 크게 변화에 따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선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설립과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주요 SOC 사업(영천~삼창간 국도4차로 확장, 북영천~선천리 국도확장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천시는 현재 정부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일자리 추경을 통한 시급한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미래 영천의 변화된 모습을 크고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2018년 주요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 대응해 기재부, 중앙부처, 국회 방문을 통해 국비 최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윤키 기자



맛과 멋과 이야기가 있는 곳

영천공설시장 주부그림교실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 2017년 9월 25일 ~ 11월 30일까지

주 최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 관 : 영천공설시장 상인회 331-1772
 문 의 : 010-6509-2234



현직 경북문화융성위원장, 이번에는 무허가 공원조성

불법농지전용에 농촌공사 농수로도 무단 훼손

부당하게 예산을 끌어와 유림재현관을 건립하려다 말썽을 빚었던 경북문화융성위원장(한 모씨)이 이번에는 유림재현관 건립부지 일대 거대한 불법행위가 포착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씨는 단체 및 문화관련 지역 최 고위직 인사여서 도덕성까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 씨는 지역 한 시민단체로부터 “시·도비를 이용해 자신의 선조에 대한 이상화사업을 하려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본지 214호 1면 보도(이상한 예산, 편법인가 불법인가? 의회까지 농락? 영천유림재현관기사로 영천시가 의회로부터 심한질타를 받았고 집행부 부서장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었다. 불과 15여 일 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의 영천유림재현관 건립부지 인근에 수천 톤의 자연석을 반입해 거대 불법공원을 조성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불법공원 조성 현장은 신녕면 연정리 180번지 일대 10여필지 수만 m²다. 이곳에 한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아름드리 소나무 50여 그루를 옮겨 심었고, 거대 자연석 수천여톤(100여대 분량)을 반입해 연못과 돌담분수대, 조경시설 등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또 한씨는 불법으로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소유의 농수로 수십 미터(m)에도 수천톤(t)의 거대 돌담을 쌓아올려 분수대 등 조경시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한씨가 조성하는 문제의 영천유림재현관 건립부지에 본지가 현장 답사를 간 자리에서 밝혀졌다. 당일 현지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최근3년 전부터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해 지난해 연말쯤 덩크트럭 수백대 분량의 자연석을 반입했다”고 말했다.

또 주민 A씨는 “이곳에 자연석을 반입하면서 좁은 마을길로 덩크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드나들어 분진과 소음 등에도 시달렸다”면서 “우리는 불법인줄도 몰랐다”고 전했으며, 한 때는 좁은 마을 길 모서리에서 대형차량이 거대 자연석을 농지에 떨어뜨리는 등 “인사사고도 겪었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대형 공사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 등 환경관련 방지시설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영천시의 농어촌공사 측은 까마득하게 몰랐다. 해당 불법에 대한 본지의 지적에 영천시 관계부서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농어촌공사도 잇따라 농수로에 대한 원상회복 서한을 한 씨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지에 알려졌다.

한편, 한 씨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의 유명 인사로 경북도지사와 가깝게 지내느니 예산이나 축내고 또 권력의 힘을 빌려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며 한 씨의 도덕성을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 공무원까지도 “너무 심했다. 위법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금호중·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기공식 개최

지역주민·학생 함께 사용, 내년 2월 준공

금호중·고(교장 여성택)는 11일 오전 11시 교내 유도관에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조남월 부시장과 유병수 교육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및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여성택 교장, 학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다목적체육관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으로, 규모는 연면적 850m²(지

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4억8백만원(기금 4억8천만, 시비 7억2천만, 교육청 10억8천만, 기타 2억)이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여성택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체육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안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은 “영천시, 경북도와 많은 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단에

서도 금호중·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병수 교육장은 축사에서 “개방형 체육관 건립으로 지역, 학교,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 금호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금호중·고가 변화하는 교육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남월 부시장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금호읍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며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손흔익 기자

“더는 시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윗물이 맑아야 이랫물이 맑은 법’

기/자/수/첩

지난 (8월 8일 본보 제214호 1면)에 『이상한 예산, 편법인가 불법인가? 의회까지 농락? 영천유림재현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 건은 경북도지사와 가까운 현직 경북문화융성위원장이 도비 6억원을 받아 시비 6억원과 자비 3억원 등 도합 15억원으로 신녕면 연정리 182 일원 1,920m²의 부지에 390m²(120평)규모의 철근콘크리트 및 기와(1층 사무실과 전시관, 2층 강학 공간)로 된 ‘유림재현관’을 건립하려한 내용이다.

가 일반시민들도 아닌 지역 여론주도층인데다 윗물에 속한다는 것이다. 즉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인데도 권력과 힘을 이용해 오히려 불법이나 보조금(세금)을 자의적으로 요리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장지수 기자

‘유림재현관’이라면 주체는 지역 유림이다. 그런데 정작 지역유림과 시민들만 몰랐다. 영천시는 도비를 받고도 부기명에는 모두 시비로 둔갑시켰다가 의회에 된호통을 받았다. 이춘우 의원은 “예산서 부기명과 의회 보고가 다른 것은 우리의회를 바보로 만든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고, 해당부서장과 기획실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과까지 하며 고개를 숙였다.

불법인지 편법인지는 가리지 않고 사과 한마디에 결국 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작 시민들만 알지 못한 채 말이다. 보조금이나 시민의 혈세가 힘 있는 권력자들의 전유물은 아닐 진대 말이다.

그런데 이 보다 더한 것은 ‘유림재현관’과 관련된 문화융성위원장이 이 일대에 엄청난 불법을 수년간 일삼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불법농지전용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수로까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덮은 것이다. 수년에 걸쳐 아름드리 소나무 50여 그루를 반입해 공원을 조성한 것은 물론 덩크트럭 100대분량 이상으로 수천톤(t)의 자연석으로 연못과 분수대 등 마구잡이로 농지와 공공기관 소유 시설물을 불법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본 기자의 지적에 해당부서와 기관은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원상복구조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들 행위자

비단 이같은 우려는 김영석 영천시장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 중 김 시장을 우려로 존경하고 있지만 김 시장 개인은 자신의 리스크를 감싸기에 급급하다.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으로 시 재산인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사람과 마주앉아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과 인근불법행위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형식을 취해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니 아연 실색이다. 힘 있고 시민들을 이끌어가는 지역 리더들의 모범이 아쉬운 대목이다. 해당부서에서야 어떻게든 합법화 조치 후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한마디로 타이밍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김 시장을 헐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9월 초 한바탕 소동이 있는 직후여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은 부디 김 시장의 이같은 계획이 소문이었길 기대한다. ‘윗물이 맑아야 이랫물이 맑다’는 옛 속담의 필요성이 우리 영천에 적용되는 것이 못내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공권력은 불의와 타협해서는 존재이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다.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어지는 오는 11월 본 감사에는 영천시의 맑은 시장 소식을 들었으면 희망한다.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 전개

부족한 혈액수급 동참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12일 영천시청 전정에서 하절기 부족한 혈액수급을 위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수혈용 혈액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2차례 영천시청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헌혈대상은 만16세 이상 만 70세 미만으로 남자는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이어야 한다. 지정장소에서 간단한 문진을 통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며, 1회 헌혈 시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헌혈행사는 영천시 직원을 비롯해 영천교육지원청, 장애인복지관, 시민 등 전체 70명이 신청해 49명이 헌혈에 참여했고 현재 혈액확보가 시급한 A, O형에 대한 전혈 참여자가 많았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직원 및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헌혈 나눔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 한우농가 운수대통!

미경산우 부문 장려상, 경품1등 당첨

2017년 경북한우 경진대회에서 영천의 한농가가 미경산우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더불어 경품 1등에도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경북한우 경진대회는 한우 개량성과를 평가하고 한우농가들의 사기 진작과 정보 교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내 21개 시군에서 84두(고급육 품평회 29두 포함)가 출품돼 암송아지, 경산우, 미경산우, 고급육 품평회 등 각 부문별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씩 경북 최고 한우를 선정했다.

영천시는 3농가에서 각 부문별로 1두씩 4두를 출품해 미경산우 부문에 출품한 이수천(고경면) 농가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용기 기자

제2회 영천시장기 파크골프대회, 6개 클럽 선수130명 참가

단체 1위 한마음, 개인 남자 1위 유근수, 여자 1위 김분남 선수

영천시 파크골프협회(협회장 전영준)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오수동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영천시장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남월 부시장과 전영준 협회장을 비롯해 한혜련·김수용 도의원과 시의원 및 체육회 관계자, 선수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에는 6개 클럽(장애인 클럽) 파크골프 동호인 1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겨뤘다.

대회결과 단체전에서 500타를 기록한 한마음클럽이 우승을 거머쥐었고, 2위는 길벗, 3위는 스타, 4위는 문화, 5위는 시민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개인전 남자부에서는 한마음클럽 유근수 선수가 55타로 1위, 여자부에서는 한마음클럽 김분남 선수가 59타로 각각 1위에 올랐다. 또 장애인 클럽에서는 김준환 선수가 29타로 1위를 차지했다.

조남월 부시장은 대회사에서 "파크골프는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

는 가족 스포츠다. 오늘 제2회 시장배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끝까지 무사고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전영준 협회장은 축사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대회가 건강은 물론 친목도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분들이 그 동안 같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했다.

손훈익 기자



불법광고물 절대 안돼! 민·관·경 합동 캠페인



영천시는 12일 지역옥외광고물협회와 공동으로 오전 8시부터 30분간 시청오거리에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천시 공무원 25명, (사)경북옥외광고물협회 영천시지부(지부장 명철수) 회원 20명, 경찰 등 모두 50명이 참여 했다. 김경원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영천-청도)과 박영환 전 시의원 등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불법현수막 NO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 만들자!', '불법현수막 NO! 바람직한 광고문화 YES!',

'상업광고는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 주세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출근길 시민들을 향해 홍보를 했다.

이날 시청오거리 캠페인에서 시 관계자는 "오늘 캠페인을 시작으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깨끗한 영천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명철수 옥외광고 영천시지부장은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캠페인에 참여한 업계에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손훈익 기자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제5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수요처 요구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 실천

(사)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조낙현)는 지난 14일 자원봉사센터 1층 교육실에서 '제5기 영천시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교육과정 70%이상을 이수한 참여자 30명에 대해 수료증 전달과 교육이수 과정에서 타의 모범이 된 2명에게 우수 수료생 표창장을 수여했다.

자원봉사대학은 전문기술 교육과정으로 헤어커트, 이벤트기술(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천연캔들) 등 지역 수요처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함으로써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헤어커트 수료생들로 구성된 가위손 봉사단은 수료과정 중 틈틈이 관내 요양병원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커트 및 말땃 봉사활동을 펼쳐와 귀감을 사고있다.

헤어커트 수료생 조선미(서부동)씨는 "이미용으로 처음해보는 봉사활동이지만 깔끔해진 어르신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며 "꾸준하게 방문해 이미용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영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대학을 통해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전문자원봉사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조낙현 영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은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점점 다양하게 전문화되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대학을 통해 배운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양적으로도 팽창이 중요하지만 다양한 기술 소유자가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참다운 자원봉사가 이루어져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훈익 기자



경 제22차 북안초등학교총동창회 총회 축

○ 일 시 : 2017년 10월 9일(일요일) 10시30분

○ 장 소 : 북안초등학교 운동장(만남의 광장)

임원명단

고 문	한학수	이정길	정효상	여성부회장	김주석
	성희목	박선섭	이명호	여성부회장	박환옥
직 전 회 장	최해석			여성부회장	김화순
회 장	정용기			사무국장	김호규
수석부회장	이만우			총 무	이건우

기별회장	—	21회	김태식	32회	이대식
11회	한학수	23회	김태환	33회	박재용
12회	김경수	24회	류희봉	34회	최기원
13회	이우천	25회	박재규	35회	염화식
15회	정우동	26회	서도원	36회	정환문
16회	박두환	27회	이광우	37회	박광석
17회	김기환	28회	손수원	38회	류재도
18회	황한섭	29회	박성태	39회	박일환
19회	김정규	30회	최종해	40회	박찬수
20회	류재준	31회	이만우	41회	김창수

북안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정 용 기

회장 010-4535-4901 사무국장 010-8587-8508 총무 010-3504-9458



청렴도 향상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공공기관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 척도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간부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선순수범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남월 영천시 부시장이 '청렴! 공공기관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척도'라는 주제로 강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현장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시함으로써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 영천시는 2017년 청렴 영천 실현을 위해 전 직원교육, 각 부서 전화 친절 응대 교육, 청렴도 취약분야 전화설문조사 실시 및 상시청렴학습 시스템운영 등 청렴도 향상

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남월 부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렴'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렴도는 공직자에게 핵심가치이자 자존심이므로 반드시 청렴도를 향상해 청렴 영천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흔익 기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오는 26일부터 영천 관내 48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보건소는 서부동, 중앙동을 시작으로 각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각각 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사업이 시작되는 9월 26일 이후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민간 병·의원을 방문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또, 만 65세 미만 영천시민 대상자 중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5세이상),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장애 1~3급(만5세이상), 다문화가정(본인 및 배우자, 5세 이상 자녀)은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

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10월 16일부터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조명재 영천시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이전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손흔익 기자

보건소 동별 예방접종 일정

- 서부동/중앙동 9월 26일(화)
- 완산동/남부동 9월 27일(수)
- 동부동 9월 28일(목)
- 전체동 9월 29일(금)~약소진 시가지(접종대상자중 미접종자)
- 시간 : 09:00~17:00
- 장소 : 보건소 1층로비
- 비용 : 무료

한약과일축제기간 헤어쇼 연출된다

환상적인 축제분위기 조성 추진

2017년영천한약과일축제 개막식에 뷰티헤어쇼가 선보인다. 이번 헤어쇼(고전 및 창작머리)에는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을 접목시킨 뷰티콘서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고의 뷰티 기술에 의한 작품을

통해 화려하고 환상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대한미용사회 영천시지부(지부장 김안숙)는 미용인들의 사기진작 및 미용기능 장려, 기술감사 헤어쇼 작품발표에 따른

미용예술의 계승발전,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사회적 헤어쇼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안숙 지부장은 "이번 헤어쇼를 통해 영천시 미용인의 단합과 미용인의 위상을 알리는데 이의를 담당하고자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영천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올해 경북 최고 명품 한우는 누가 선발됐나!

경북지역 한우산업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

올해 경북도내 최고 명품 한우를 선발하는 '2017 경북한우경진대회'가 14일 경북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형재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을 비롯해 김관용 도지사, 김영석 영천시장과 정동채 영천축협조합장, 한우농가, 공무원, 농·축협, 관련기관 임직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품평회와 한우인의 날 행사를 겸해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총 84두의 우수한 한우가 출품됐는데, 지난 6일 사전행사로 이뤄진 고급육품평회에는 29두가 출품돼 최고급육 4점(최우수 1, 우수 1, 장려 2)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개 부문(경산우, 미경산우, 암송아지)별로 각각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씩 경북 최고 한우가 선발됐다.

특히 올해는 지역축협의 한우농가 사육 컨설팅 담당자들의 생축에 대한 초음파 육질진단기술을 경진해 서로간의 기량을 다투었다. 이후 농가 컨설팅 관련 기술 및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 이날 축산 기자재와 지역 특산물 전시, 축산인 한마음 행사, 도내에서 최고령우 및 가장 큰 소, 희귀종인 백색 한우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이날 경진대회 자리에서 "최근 사육수수 증가와 경기침체로 소비위축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경북지역 한우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췌장암 조기발견 예방수칙 예방교육 실시

야외작업 시 긴옷 반드시 착용해야

최근 추석별초, 농작업, 야외활동 시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췌장암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췌장암시증의 잠복기는 1~3주이며,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감기증상과,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고 피부에 붉은색 반점(발진)이 몸통과 사지에 생긴다.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까지 없으며,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 농작업 시에는 전용 농작업복을 꼭 착용하고, 농경지와 주변, 거주지와 주변 풀을 베어 털진

드기 접촉을 피해야 한다.

휴식 시에는 돗자리와 농작업용 방석을 사용하고 풀 위에 옷을 벗어 놓지 않으며, 농작업 후에는 귀가 즉시 농작업복 일체를 세탁하고 목욕을 해야 털진드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

영천시는 췌장암시증 예방수칙 및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으며, 읍·면·동(지소,진료소)에 예방 홍보용 기피제를 배부하고, 농업인 및 주민 교육을 위해 순회예방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영천소방서,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총력

영천소방서(서장 이상무)는 내달 11일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귀성객이 많

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역, 터미널,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통해 화재위험요인과 피난시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방대책은 최대 10일간의 긴 추

석연휴를 대비해 전통시장,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전원차단,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사용 장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피난약자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보육시설에는 관서장이 직접 현장지도방문을 나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전통시장에서 '비상구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석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화재예방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사고 발

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무 서장은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정욱 기자

영천신문 독자권!!

이 난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영천신문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개업인사, 영업홍보, 구인광고, 결혼, 축하, 행사 등을 알려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광고국 054)338-7100
010-7138-3340
FAX)054)335-6600
E-mail : lciyg4@hanmail.net

북안종합건설(주)

건축자재전문기업
예림도어/몰딩/마루/사시/합판
목재/생부목/싱글/사이딩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973
☎ 054) 333 - 7025

타일 시공

타일시공 · 욕실수리전문

박봉환 010-4870-9686

계좌번호 : 농협 758-12-122338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박종석 011-521-0006

친절하게 안전하고 빠르게 모십니다!

미스터 플라워

전국 꽃 배달서비스

신정희 010-3554-3726

영천시 금원로 81-1(완산동)
☎ 054) 333 - 8877

(주)부국전력 · 소방

면허 제1025호
(소방공사업/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이정기 010-2804-7951

영천시 아사동 119-12번지
☎ 054) 332 - 7282

세원인력개발

인력모집/수목관리/집수리
청소철거/폐기물/토목

박석암 010-4511-9525

☎ 054) 332 - 9525

삼송꾼만두

사단법인)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박동환 010-8852-8806

☎ 054) 333 - 8806

일신종합상사

납품전문업체

금형공구/금형표준부품
금형소모품 및 밀폐기공

영천시 영천신단로 347-17(채신동)
☎ 054) 337 - 0984

국립영천호국원 51번째 일일명예집례관 김순화 의장, 14위 합동안장식



김순화 영천시의회회장이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우동교) 일일명예집례관으로 위촉돼 12일 호국원 현충관(顯忠館)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국가유공자 고(故) 김일조외 14분의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번 김 의장의 일일명예집례관은 호국원이 명예집례관제도를 실시한 이래 51번째며, 여성으로는

첫 대구병무청장에 이어 4번째다. 김 의장은 이날 합동안장식에서 일일 명예집례관 첫 순서인 조사 낭독에 이어 헌화 및 분향, 헌시 낭송, 영현 봉송 순으로 안장식을 이끌었다. 김 의장은 조사를 통해 호국 영령에 대하여 “삶과 죽음이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한 자연의 섭리라지만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영령님들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다시는 뵈울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한다”면서 엄숙하게 조사를 낭독해 참석 30여 유족과 가족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날 안장식에 앞서 김 의장은 30여분 일찍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방명록에 “님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우동교 국립영천호국원장은 “국기를 대신해 한달에 1회 모범 기관장 및 우수기업 대표, 각급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일일명예집례관으로 모셔 합동안장식을 거행함으로써 학생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하여금 나라사랑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면서 일일명예집례관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관(顯忠館)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호국영령을 모시고 애국충절을 기리며 안장식을 거행하는 장소다. 장지수 기자

2017년 경상북도 보육인 한마음 대회 개최 도내 보육인 3천여명 참석



보육인들의 축제인 ‘2017 경북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16일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보육! 열린 어린이 집! 행복한 영유아’ 슬로건으로 도내 2천여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북도와 영천시가 주최하고 경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두규)가 주관

한 이날 경북 보육인 대회에는 김창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영천시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해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천시연합회 합창, 전자바이올린 등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보육일선에서 헌신한 새싹어

린이집 강명순 시설장 등 70명의 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보육사업에 큰 공헌을 한 영천시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행사장 주변에는 보육현장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와 솜씨가 돋보이는 우수교재교구 연구 작품 100여점이 전시되고, 영천시 특산물과 명품 와인 등을 저렴하게 판매해 영천시를 방문한 보육교직원들의 발길을 끌었다. 또 기념식 후에는 시군별 보육교사 퀴즈대항과 코요테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으로 3,000여명의 보육인들이 화합과 도약을 위해 하나 되며 신명나는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영유아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보육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린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육인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경북도에는 15,000여명의 보육종사자가 69,000여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으며 영천시에는 총 56개소의 어린이집에 433명의 보육교직원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흔익 기자

제29회 영천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부자영천 한농연 힘으로’



지역 농업경영인들의 한마당 잔치인 ‘제29회 영천시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600여명의 지역 한농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영천생활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부자영천 한농연의 힘으로!’라는 주제를 앞세워 한농연영천시연합회(회장 한용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시장, 이만희 국회의원,

김순화 시의장, 도·시의원, 김형철 경북도 연합회 수석부회장, 지역 각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청도군 박철호 회장 등 경북도내 각 시·군 임원단과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부안군 최은석 회장 등 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이날 행사를 빛냈다. 한용호 회장은 “올해는 무더운 여

름과 가뭄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서 “비쁜 농사철이지만 오늘 하루는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당부했다. 김영석 시장은 축사에서 한농연의 위상을 강조한 후 “농사는 힘들지만 바로 우리의 안보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서 “우리 시는 7%의 농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영천은 농업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도내 단위 농업 중심지역에서 가장 많은 역대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김순화 의장도 “어려운 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히 일해 온 농업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우리의 농촌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날 회원들은 여자팔씨름, 이벤트 달리기, 풍선터트리기, 꼬리잡기, 단체줄넘기, 노래자랑 등으로 오후 늦게까지 한마음 화합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손흔익 기자

다산한의원 개원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 약속



다산한의원(원장 한성협)이 지난 15일 영천시 완산동 역전로 한의원 건물 2층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한 다산 한의원 한원장은 현 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과 국제로타리 3630지구(경북) 전 총재인 한승훈 총재의 자제다. 개원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이상무 영천소방시장, 조낙현 영천

시자원봉사센터 소장, 최부석·최필환·성영근·정동채 등 지역 각 조합장과 황진모 대구은행 영업부장, 관내 기관·단체장, 기업인, 로타리 회원, 한의원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다산한의원 한성협 원장은 이날 개원 선물로 받은 쌀을 모두 관내 경로당 등에 기부하기로 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손흔익 기자

영천대첩 기념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 오는 23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일원



제67회 6·25전쟁 영천대첩 기념 ‘제1회 나라사랑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가 오는 23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체험관 및 주변 현충시설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한국미술협회경상북도지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영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대구지방보훈청, 경북남부보훈지청,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교육지원청, 영천시보훈단체협의회가 후원한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명운을 살린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전할 본 대회에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신청서는 (사)한국미술협회 영천지부 사무국 이메일로(kht83@hanmail.net) 사전

제출 받으며, 대회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심사는 대회 당일 작품 접수 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뉘어 대회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유치부 대상(대구지방보훈청장상) 1명, 초등부 대상(경상북도교육감상) 1명, 중·고등부 대상(경상북도지사상) 1명 등을 비롯하여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등 수상작 외에 장려·특선·입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9월말까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http://memorial.yc.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손흔익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영천대첩, 6.25전쟁사에 가장 빛나는 영천전투 뜻 기려



국립영천호국원서 제67주년 '영천대첩' 기념식

제67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가 지난 13일 국립영천호국원 대첩 전적비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석 영천시장, 김순화 의장,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안주생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우동교 호국원장, 이범선 영천대첩 참전전우회장, 방종관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도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전국 각 지역 영천대첩 참전전우회원, 영천시 보훈단체, 영천대첩 참전부대 군인, 관내 중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해 현화·분향, 헌시 낭송, 기념사,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67주년을 맞은 영천대첩은 6·25전쟁 중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최후의 보루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전투다. 당시 보병 제8사단(당시 사단장 이성이 준장)이 주축이 돼 10일간의 필사의 공방전 끝에 적을 섬멸함으로써 영천지역을 탈환하고 북진의 계기를 마련한 6·25전쟁사에 가장 빛나는 전투로 기록된다.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영천대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영천대첩 참전전우회 노병 150여명이 노령과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국의 전선에서 장렬히 산화한 전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을 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환영사에서 "영천대첩에서의 불굴의 정신이 6·25전쟁사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를 가져왔다"며, "영천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고찰하고 호국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호국 영령에 대한 명복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기념사에서 이범선 영천대첩 참전전우회장은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영천전투의 승리는 저와 전우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전투이자 역사"라고 했고, 방종관 사단장은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선배

전우님들의 영전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순화 시의장은 "6.25전쟁 최후의 보루이며, 최대 격전지인 영천지구 전투에 대한 전공과 기원을 드리며 영천대첩 기념행사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자"며, 영천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었다.

또 권영길 복지건강국장은 격려사에서 "영천전투 승리를 기념하고 피로써 조국을 지켜낸 호국 선열들의 순구한 애국정신을 계승하자"고 강조했다.

손훈익 기자

제27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 참가 영천의 생활체육동호인들 한자리에 모여



제27회 경북도민생활대축전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개 종목, 1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미 시민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영천시는 16개 종목 316명의 선수가 참가해 도내 시군선수들과 그 동안의 실력을 겨루었다. 8일 개회식에는 영천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회장 및 회원 120여명이 참가해 영천의 밑과 항공, 별의 도시를 상징하는 말, 비행기, 별 풍선을 이용해 지역홍보에 나섰다.

또 이날 생활체육진흥유공 도시사 표창으로 최성윤 영천시야구협회장, 성동표 경북도태권도협회 이사 및 김덕수 영천시게이트볼협회장 등 영천시에서 3명이나 표창패를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군별 종합 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만큼 참가한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동호인 130여명 그라운드에서 라운딩



지역화합 이끌 수 있는 운동

제2회 영천시장기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지난 15일 강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최됐다.

영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천시

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한 개회식에는 한찬희 그라운드협회 회장, 조남일 영천시부시장, 한혜련·김수용 도의원, 전종전 시의원, 최기문 전

경철청장, 정우동 전 영천경찰서장,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협회 임원, 동호인,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찬희 회장은 "그라운드골프는 고령화 사회에 실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고 건강과 재미를 모두 만족시키고 나아가 지역화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며 실버층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참여한 시타식에서 한혜련·김수용 도의원이 출신원을 기록하는 재미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5팀이 참가한 단체전 경기결과 단포클럽(320타)이 우승했고, 석문클럽(345타)이 준우승, 동부클럽(368타)이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 결과는 김순자(단포) 선수가 33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정태자(석문) 선수가 35타로 준우승, 정영석(단포)

선수가 36타로 3위를 차지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를 변형시킨 새로운 스포츠로 골프채로 지면 위로 공을 쳐서 홀에 굴러 넣는 경기다. 장소에 따라 거리나 홀 포스트의 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룰도 간단해서 어디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목이다. 생활스포츠로 정착되고 있는 영천시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의 실력은 경북도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천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용적이고 알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기 기자



신녕향교, 경로효친 사상 기로연 개최

지역 어르신 백세건강기원 축사



기로연 행사는 조선 태조 때 전·현직 문신 정2품을 지낸 70세 이상 학문과 덕행이 높은 늙은 신하들을 모아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이다.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여 연로

영천시 신녕향교(전교 조영호)는 지난 14일 신녕향교 명륜당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근간으로 예의와 도덕을 선양하고 향교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기로연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해련 도의원, 정기택 시의원, 이종권 면장, 기관단체장과 지역 유림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영호 전교의 기로연의 유래 설명과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묘향배, 어르신들의 백세건강을 기원하는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향교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서로 간에 정담도 나누며 전통 민속놀이인 투호를 즐기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한 신하를 예우한 경로효친 사상과 군신간의 화합의 자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숭선 실천하기 위해 매년 9월중에 개최된다.

조영호 전교는 “미풍양속과 도덕성 회복 등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 온 향교유림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한다”고 말했다.

이종권 신녕면장은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존중해 온 경로효친 사상이 날로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많이 아쉬우고, 우리의 효 문화를 시대변화에 맞게 바로 세우고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용기 기자

문학영천 제14집 출판기념회 개최

제5회 우로지 시낭송회도 열려



문학영천 제14집 출판기념회가 15일 우로지생태공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우로지 시낭송회도 열려 깊어가는 가을 저녁의 운치를 행사장을 찾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기념회에는 한관식 영천문학지부장, 진용식 경북문협

회장, 김주환 전 경북문협회장, 영천예총회장, 도내 각 지역문협회장, 문인, 시인,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관식 지부장은 “불확실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천문협은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면서 “의연한 문학인의 정신력으로 증진해 왔다. 이제 닦을 내려 우로지의 항구에 정박

하러 한다. 거친 파도도 있었다. 비와 바람과 추위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과 눈길에 우리 영천문협을 이끌어 주는 등대였고 고민하고 창작하는 문학인의 고심은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용식 경북문협회장, 김주환 직전회장, 정연화 문화원장, 정상용 전 고경면장, 김영현 평본가의 주옥같은 축사가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문학영천 제14집에는 특집으로 김양현 평본을 비롯, 40여명의 회원들이 고민해 만든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또 안재준, 조주환, 하정호 등 명예회원의 작품과 김대환, 고원구, 이찬재, 이희경 고문의 작품도 게재돼 있다.

2부 시낭송 시간에는 가을의 기도(김현승),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윤동주), 사모곡(신달자) 등 10여편의 시가 낭송돼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도 했다. 이용기 기자

지역 결혼이주여성 우리 고장 러브투어

평소 찾기 어려운 문화체험 제공



영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상임)는 지난 13일 영천시와 연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수강생들이 평소 가보기 어려운 곳 위주로 장소를 선택해 우리 고장을 체험해보는 기회로 모노레일 및 보현산땀뿔와이어 탑승, 점심 식사, 장기자랑 등 방문 지도사들도 함께 동행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레

티미상’ 씨는 “베트남에서 경험하지 못한 짙와이어를 타봐서 너무 신나고,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영천 곳곳을 다녀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영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다문화 가족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손흔익 기자

“제3회 운주산 별빛음악회” 열어~

임고면민 축제의 장

‘제3회 운주산 별빛 음악회’가 지난 9일 임고서원에서 개최됐다.면민들의 단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면민축제의 장으로 진행된 식전행사에 임고 농악 풍물패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1부 면민의 참여로 노래자랑을 진행해 대상은 양항2리 최정수씨(81세), 최우수상은 고천리 김종보씨(62세)가 받았다.

2부 행사로 연희예술단의 난타, 가야금 병창으로 흥을 돋우며 초청가수 선예, 조경수, 3인조 여성 락밴드 ‘록시’, 색소포니스트 서정근,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 출연해 임고면 청정지역에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운주산 별빛음악회 행사를 찾아준 임고면민 및 외지인과 출향인 1,500여명에게 ‘운주산 별빛 음악회 추진단’에서는 사랑에 봉사차 자장면 1,500그릇을



무료로 나눠 주어 나눔의 봉사를 실천했다.

또 이장협의회는 복숭아 3,000개를 무료로 나눠주며 임고면이 전국 최대 복숭아 생산지이며 가장 늦게 출하하는 품질이 우수한 복숭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벤트를 가졌다.

이날 음악회는 아름다운 연주와 화려한 볼거리 그리고 나눔의 자장면과 임고면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맛보며 면민들의 단합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감을 만족하는 멋진 행사가 됐다.

신용용 임고면장은 “농사일로 지친 면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 할 수 있도록 음악회를 성대하게 준비한 운주산 별빛음악회추진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화합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음악회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영미 시민기자

창주문화답사단, 최무선과학관 일대 역사문화자원 발굴 앞장

고려-조선-근대를 이어주는 문화유적 답사

최무선과학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시작돼 주목받고 있다.

창상초등학교총동창회 소속 창주문화답사단(대표 조순. 전 금호초등학교장)이 지난 9일 최무선과학관 주변의 창주문화권 답사에 나섰다.

이번 답사는 최무선과학관을 찾는 일부 관람자들이 과학관 전시자료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휴게시설이 부족해 체류시간이 짧은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회원들의 뜻으로 시작됐다. 과학관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고려-조선-근대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지역발전과

관광도시를 조성해보자는 창상초 졸업생들의 깊은 뜻이 내포된 것이다.

이날 답사결과 과학관반경 5km(10분 소요)내 원거리(마단)에는 고려시대 화약을 발명한 최무선 생가를 비롯, 삼호리(강정)에는 조선 세종조 한글창제에 기여한 정재 조상치 선생을 제향했던 창주서당, 의락당, 서호정 등 조선과 근대를 이어주는 많은 문화유적을 답사했다. 또 조선 중종때 을사사화로 죽임을 당한 관속의 생가, 오계리(종동)에는 조선시대 양반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취당과 금산당, 고모곡의 강계병마사 조선종의 묘소와 사효재가 있었다. 아울러 오계2리(사

근답)에는 경재 관속 선생의 사당과 이 지역 농업용수를 해결해준 대승지가 산재해 있다.

이번 답사의 문화해설사로 나선 조순(대가대. 한국사) 박사는 “창주문화권내의 역사문화 유산과 최무선-최해산-최공손-최식으로 이어진 화약과 병기의 발명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민족의 혼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이므로 이를 균형있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이끈 조 대표는 “최무선과학관 일대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농업·관광벨트를 조성해 과학관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창상초총동창회도 앞장서야한



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행사와 향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오세웅 가야대학교 교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최무선과학관은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테마과학관’ 사업

으로 선정됐으며 창상초등학교총동창회의 동의와 협조로 금호읍 원거리 일원 41,481㎡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천543㎡ 규모로 2012년 건립됐다.

이용기 기자

‘역사에서 배우는 청렴의 길을 가다’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우동교)은 지난 6일 호국원 직원들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청렴사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역사에서 배우는 청렴의 길’을 주제로 포은 정몽주 선생의 입고서원을 찾아 포은박물관을 답사하면서 청렴

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우동교 원장은 “청렴이란 공직자라면 가져야 할 기본 사항으로서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번 탐방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탐방에 참석한 호국원 직원들은 “단순 시각적 체험이 아닌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사적지 탐방이었으며 충신으로만 알던 정몽주 선생의 청렴함에서 공직자로서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립영천호국원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매달 행동강령 문자알리미, 청렴주의보, 안전·청렴캠페인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정욱 기자

2017 신병전투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



2017년 신병전투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가 지난 5일 신병면 성환산에서 용화사 주지 혜각 스님, 참전유공자, 보훈가족, 신병면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대한불교 법화종 용화사(주지 혜각)에서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식전 행사로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살풀이

춤, 당산굿 등이 시연됐다.

18년간이나 이어져 온 신병전투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는 6·25신병전투 희생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6·25전쟁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자 개최하고 있다.

손흔익 기자

기업애로 현장 목소리 들었다

‘황강공업지구’ 기업애로 청취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5일 (주)한보엔지니어링 영천공장 내 회의실에서 황강공업지구 기업체들로부터 기업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옥천당, (주)비채, 승리산업, 월성산업 등 황강공업지구 입주업체와 항공기업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및 영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영천시는 “영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3월 언하공업지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개별공업지구 릴레이 간담회

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보성공업지구에 이어 이번이 3번째 간담회”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 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소통채널 다양화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를 계속 하겠다”며, “인구늘리기 기여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신청제한 면제’, ‘전일 우수 기업 지원금 지급’ 등의 혜택에 대한 홍보로 영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손흔익 기자

‘실버 행복 사관학교’ 첫 개교 개강식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



영천에 ‘실버행복 사관학교’가 만들어졌다. 이 사관학교는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체조, 웃음치료, 명사 및 교양강좌 등으로 즐겁게 살자는 교훈을 갖고 ‘은빛별빛 행복제작소’(소장 윤경애, 전 영천시민합창단 단

장)이 기획 제작한 어르신 학교다. 은빛별빛 행복제작소는 지난 7일 오전 영전축협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명예 학교장인 정동채 영전축산업협동조합장 및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버행복 사관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은 식전 행사 은나래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이춘자씨 축하노래, 이진&김성애의 색소폰과 아코디언 연주를 시작으로 개강식, 명사 초청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명사 초청 강연 주제는 ‘한우리 실버비전 교육원’ 엄재현 원장의 ‘아름다운 노후 행복하게’다.

실버행복 사관학교 강의는 지난 7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 남녀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전축협본점 3층 회의실에서 매주 목요일 열린다. 학생모집 교육비는 4만원으로 주1회 행사가 열리며 이날 참석회원 중 축협조합원의 경우 교육비(4만원)는 전액 영전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전축산업협동조합은 실버행복 사관학교의후원 기관으로 조합원이 입학할 경우 전액 교육비를 지원하며 매 강의마다 조합 3층 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한다.

손흔익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 긴급간담회 개최!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만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농민신문사’가 주관하며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앞두고 농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상구 농민신문사 편집국 부국장이 좌장을 맡고, 김정섭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동운 농림부 경영인력과 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심의관,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

구소 박사, 윤병호 감곡벤처농업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임금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농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일용직 고용률이 높은 농업법인들은 경영비 상승에 따라 인력수급 및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2만 7천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이탈 역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업계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농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영천시선관위, 하반기 학생임원선거 지원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임원선거 지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 하반기 학생임원선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학교는 영전초등학교를 비롯해 4개 학교(300여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선관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선거의 의미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과 투표방법

등을 교육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용지 작성 지원과 투표와 개표 절차를 직접 참관하면서 선거절차 전체과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에 실시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지원을 계기로 선거의 중요성과 투표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영동중, 서울서 1박2일 진로·직업체험

이만희 의원, 국회의사당서 지역 학생들 맞아 국회 설명



영동중학교(교장 임상현) 학생 40명은 지난 7일 1박 2일 일정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인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을 서울에서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의 진로 키워드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서울고등법원, 국회의사당, MBC방송국(월드), 연세대학교 등을 방문한 직접 체험 프로그램

이다. 첫날은 국회의사당과 국회헌정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회의 기능과 구조에 대하여 이만희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아 국회에 관해 설명을 했다.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투어 및 멘토링을 통해 궁금했던 것, 공부하는 방법 등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8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해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법체계와 법조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듣고, MBC방송국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체험과 방송현장을 둘러보는 등 미래 지향적 직업관 형성과 올바른 근로의식에 대해 배웠다.

손훈익 기자

“교통사고 없는 영천! 행복한 등굣길”



영천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지난 12일 영천초등학교 정문에서 '교통사고 없는 영천! 행복한 등굣길'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영천교육지원청, 영천경찰서, 영천시, 영천초 학생 및 교직원, 영천연합녹색어머니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행자 사고 ZERO! 어린이 안전 모두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들과의 나누는 등굣길의 첫인사가 밝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등굣길 인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지역사회의 일반 운전자 및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유병수 교육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이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영천에서 365일 안전하게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고 부모님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손훈익 기자

도자기 만들Go! 걷Go! 생태 체험하Go!



지곡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교장 박진서)는 지난 13일 '내고장 프로젝트 활동으로 자존감Up'이라는 학교특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영천 우로지 생태

공원 주변에서 도자기 만들기과 걷기 체험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영천 우로지 생태공원 옆에 위치한 도자기 체험센터에서 풍경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했다. 체험 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풍경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사찰이나 현관 문 앞에서 맑은 소리를 자아내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품인 풍경 도자기를 만드는 활동에 몰입하면서 예술에 대한 소양을 높임과 아울러 흙을 만지는 활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음 발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됐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환경에 노출돼 운동량이 부족하기 쉬운 요즘 아이들이 우로지 둘레 길을 한 바퀴 걸으면서 강기를 통해 탄소발자국 줄이기와 건강한 생활 교육을 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신은우 어린이는 “생태 놀이와 하얀 두루미의 모습이 어울려서 경치도 아름답고 내 고장 영천에서 보람 있는 체험활동을 하게 돼서 우리 교장이 더욱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신녕중, 영천문화예술체험장 체험학습 실시

재미있는 실내디자인, 테디베어 만들기 체험



그라피로 엽서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자신이 적고 싶은 멋진 문구를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찾아냈다.

준비된 붓펜을 통해 여러 가지 글씨체로 멋지게 적는 연습을 한 뒤 엽서에 아름답

신녕중학교(교장 오선미)는 지난 7일 영천문화예술체험장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영천문화예술체험장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이러한 목적 아래 오전 세 시간 동안 실내디자인 활동을, 오후 세 시간 동안 테디베어 만들기 활동을 체험하게 됐다.

실내디자인 체험활동에서는 캘리

게 적었다. 그리고 준비된 꽃을 붙여서 멋진 캘리그라피 엽서를 완성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테디베어 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졌다. 인형의 머리를 만드는 것도 바느질이 서툰 학생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학생들은 강사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안경을 낀 곰, 가면을 쓴 곰 등 다양한 곰인형 머리를 만들어 내며 각자의 개성을 뽐내었다.

손훈익 기자

무선기로 전 세계 사람들과 교신하고 싶으세요?

경북본부 제129기(3급), 제29기(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강습회

- ◆ 일 시 : 2017년 9월 10일(일) 09시~18시
- ◆ 장 소 :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1층 (영천시 영천고2길 57)
- ◆ 안내처 : 경북본부 054)553-5973
영천지부장 DS5SSY 최호병 010-3545-4135
사무국장 DS5TAA 최일호 010-3502-1273

- 수강료 : 3급(4급 교육이수자 한함) 40,000원
4급(일반, 학생) 130,000원
4급(3급 교육이수자) 70,000원
(4급 자격증발급수수료, 우편료, 대항료 포함)
- 준비물 : 반명함판사진 1매, 신분증
학생은 주민등본 지참
- 교육시간
- 전파법규(3), 통신보안(1), 무선설비취급방법(4)
총 8시간 : 3급(4급 교육이수자), 4급(일반)
- 전파법규(3), 교양교육(1) 총4시간 : 4급(3급 교육이수자)



(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경북본부 영천지부

집사랑봉사단! 독거노인 가정에 집수리 봉사 '행복희망프로젝트, 집고치GO!'



집사랑봉사단(단장 김승희)은 '제11기 독실이 자원봉사단 릴레이 활동'에 선정돼 지난 9월 화남면 독거노인 가정에 집수리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실시한 독거노인가정은 고혈압,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 겨울철 난방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생활해 바람과 추위를 막아줄 시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집사랑봉사단은 사전방문 후 회의를 거쳐 기존 계획대로 외풍을 차단하는 방법 대신 어르신 한 분이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을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도움을 받은 어르신은 "젊은이

들이 어려운 가정에 찾아와 집을 지어준다니 너무 고맙다."며, "예전에는 겨울을 맞이하기 무서웠지만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며 단원들에게 연신 감사를 표했다.

김승희 단장은 "단원들 모두 나눔을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녹현 영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영천시자원봉사센터가 항상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정기 시민기자

정기기탁으로 시장학기금 300억 달성에 동참



화산면이장협의회

영천시 화산면 이장협의회(회장 이희도)는 지난 11일 화산면사무소에서 소속 이장 24명 모두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정기기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장회의에 앞서 영천시 관련 부서는 출장 방문으로 장학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현황 등을 설명하고, 영천시장학회 2020년 기금 300억 원 달성 목표를 강조하고, '시민 한 세대 1계좌 정기기탁 운동'에 이장들이 먼저 솔선해 동참해 줄것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든 이장들의 이같은 정기기탁 신청은 시장학회의 뜻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 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시민 1세대 1계좌 정기기탁 운

동'에 1,200여명(자동이체 건 수)이 참여하고 있으며, 1계좌당 금액은 천원에서부터 일만원까지라고 했다. 모기업체는 1계좌에 50만원씩 정기기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희도 화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지난 6월 영천시장학회의 '장학기금 200억 원 조기달성 시민보고회'에 참석했을 때 수많은 기탁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장학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데에 큰 감명을 받았다.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장학기금 기탁 행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흔익 기자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신녕여성의용소방대, 지역 봉사활동 모범 단체로 귀감

11년동안 소외계층 찾아 손수 꾸준한 봉사 펼쳐



영천소방서 신녕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경애)는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신녕면 화성리에 위치한 신녕면 남녀노인정을

방문하여 지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덕용 신녕 119안전센터장, 이종권 신녕면장,

정기택 시의원, 박영진 신녕농협조합장 및 신녕여성의용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녕면 남녀노인정 주변 환경정리 및 손수 식사대접을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신녕여성의용소방대는 2006년 발대된 이후 11년간 영천 나자렛 집을 비롯하여 관내 소외계층 등에 수 백여 차례 이상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박경애 신녕여성의용소방대장은 "신녕여성의용소방대는 관내 안전지킴이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랑나누기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환히 웃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황정욱 기자

영천경찰서, '바로찬글 랩핑계단'

바른말 고운말, 올바른 청소년 인격함양



영천경찰서(서장 심덕보)는 청소년들의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찰서는 '바로찬글' 랩핑스티커'를 제작·부착해 학생들의 폭력적 언어 확산을 방지

하고 생활 속에서 바른말 사용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영천교육지원청이 협업으로 '17년 초 실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표어 우수작 '네가 내게 했던 그 욕, 나도 네게 해도 될까?' 등의 문구를 영천여

고 등 8개 학교 내 계단에 '바로찬글' 랩핑 계단(사진)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서와 교육청은 이번 '바로찬글' 랩핑 계단 설치로 학교와 학생들은 평소 무심히 사용하던 욕설이 친구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로찬글'이란 바르고 옹골찬 말을 쓰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이 언어순화를 통해 소통·공감 능력을 향상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이 담겼다.

심덕보 서장은 학기 초 학교폭력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황정욱 기자

포스코 에너지부 동력섹션 성금 전달

자양면 특별인연 계속 이어져

지난 5일 포스코 에너지부 동력섹션(리더 정윤식외 2명)직원들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자양면(면장 조광현)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 목적은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조광현 자양면장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행정과 기업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우이웃돕기(자양면 삼귀리 전00여) 성금(60만원)을 전달했다.

자양면과 포스코 에너지부 동력섹션은 2001년 처음 자매결연 맺은 이래 매년 두 세 차례 영천과 포항을 오가며 서로의 인부를 묻고 자양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경로잔치 및 웃놀이대회 등에 직접 참여함은 물론 자양면민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조광현 면장은 "앞으로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면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용기 기자



내년도 유·초·중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26명 선정·배치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병수)은 2018학년도 입학·진학하는 유·초·중 과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26명을 선정·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1일 오후 영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청은 지난 8월 실시된 진단평가 자료에 근거해 도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고등학교 진학자를 제외한 유·초·중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및 2017학년도 순회교육대상자 심사 등의 안전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또, 심의 결과에 따라 학생을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중 한 곳에 배치하고 개별학생의 장

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별화교육과 관련서비스 등 교육지원 내용도 결정했다.

교육청은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은 개별 교육 지원 및 치료지원, 보조공학기기, 통학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등 최적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손흔익 기자

★이태현 변호사의 법률상식

<이번 이견 우에 되요?>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던, 다 큰 아들의 해외 유학비용. 아버지가 대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을까?

김갑동은 이을녀와 결혼했고, 이을녀는 대단히 자녀 교육열이 높은 열혈맘이었다.

이을녀는 아들 김개동이 14살이 되는 해에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키기로 했고, 김갑동은 자식이 부모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 여겨 이 유학 결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을녀의 열의가 김갑동의 반대를 이겼고, 김개동은 이을녀에 의해 미국 유학을 가게 된다. 김갑동은 이을녀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아들 유학을 그대로 추진하자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 김개동이 성년이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도리를 했지만 이을녀와는 상당히 마음이 멀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을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김개동의 교육에 헌신을 다 했고, 이을녀의 지극 정성에 감동하여 김개동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딱 하니 합격했다. 김갑동은 김개동의 명문대 합격도 별로 달갑지 않았고, 입학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김개동이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미국 유학비용인 학비와 기숙사비를 모두 제 손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유학비용을 일체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이을녀는 김갑동에게 서운한 마음이 컸고 김개동이 애써 합리적인 명문대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통해 김개동의 유학비용을 김갑동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면서 유학비용 1억 5천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대학생인 자녀의 교육비, 특히 고액인 유학비 과연 아버지가 계속하여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부부간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법상 '제1차 부양의무'에 해당됩니다. 1차 부양의무에 해당되는 관계에서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수준과 같은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거의 전적인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내가 밥을 세끼 먹고 고기반찬을 먹을 수 있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으며 백화점 쇼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피부양자도 동일한 수준에 달하도록 부양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위 사안에서 김개동이 만약 미성년 자녀였고,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 비용과 학비, 기숙사 비용과 용돈을 청구하였다면 김갑동의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그 모든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년의 자녀는 1차 부양 의무를 져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2차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대상자에게는 2차 부양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스로 벌여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보조적인 부양 역할만 안으면 되기 때문에, 이미 성년이 된 김개동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과외, 제3의 장학기금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김갑동이 계속하여 유학비용 전부를 부담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려 위와 같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바 있습니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번! 이견 우에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746-0088, Fax053)721-8865, thyune@hanmail.net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 영천신문

사 설

영천시 인구 늘리기, 탁상 아닌 현실성 갖춰야

영천시가 이달 들어 갑작스레 인구 늘리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과 세금만 허비하는 탁상시책이라는 비난이 높다. 그것도 공직사회의 불만이 더 강하다.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다른 지자체가 하니 마지못해 뭐라도 보여주고 싶은 억지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영천시 인구는 2013년 100,778명에서 지속 감소해 2014년에는 100,689명, 2015년 100,648명, 2016년 100,521명까지 매년 단 한 차례도 늘어난 적이 없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0,304명으로 이제는 10만 인구벽이 허물어질 위기다. 신생아 출산율까지 덩달아 줄고 있다. 때문에 뒷집만 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애민 공무원들만 뒤통자치는 안 된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도남공단 일대 등에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동원해 연일 수차례 지역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마을1가구 인구 늘리기'와 더불어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을 동원해 캠페인만 벌인다고 늘어날 인구가 아니지 않느냐. 단순 행정력 낭비에 불과하다.

인구감소 원인은 청년일자리의 주거정책, 저출산, 근로조건 개선, 육아 및 교육 등 근본적 대안마련이 우선 아니던가? 살기 좋고 장사 잘되는 도시, 자녀 양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오지마라해도 영천으로 이사 올 것이다. 일자리를 늘려줄 경마공원과 고경산단을 누가 10년째 표류시키고 있는가? 그렇다고 외지 사람들이 몰려올만한 볼거리와 체제로 된 관광지가 없지 않느냐? 또 공직사회는 부패와 경직으로 감추기에 급급해 청렴도

는 늘 상 꼴찌수준을 독차지하고 있다. 지역 산업구조 역시 자동차부품 1,2차 밴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개선에 시급하다. 영천시가 부르짖는 항공·전자산업과 첨단의료기기, 경제자유구역 등 어느 하나 시민들에게는 와 닿는 것이 없지 않느냐? 부자영천은 입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을 보면 전입지원금과 출산양육지원금, 귀농·귀촌지원 등 10여 가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3인 이상 전입세대에 20만원, 쓰레기봉투(20리터) 1묶음, 대학생 및 군무원 전입세대에 20만원을 지급한다. 돈20만원과 쓰레기봉투 몇장에 타시·군에서 이사 올 세대는 없을 것이다.

유공기관과 기업체에 주는 혜택은 더 가관이다. 5명에서 200명까지 직원들의 주소를 영천으로 옮겨올 경우 단체로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 역시 연초 대비 연말 비교로 12월에 주소를 옮겨오고 다음해 1월에 전출해도 지급된 지원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다. 관리가 필요 없는 전형적 탁상 행정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아이 낳으면 50만원이다. 하지만 이것도 출생시 30만원에 1년 후 돌 때 20만원이다.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540만원, 넷째는 900만원 등이다. 전남 구례군은 2016년부터 첫째 아기 출산에 12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720만원, 넷째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러면 영천으로 올 시민이 구례로 이사를 갈까? 마지 돈 줄테니 제발 아기 낳아달라는 애원이나 다름없다. 이 지원책을 두고 "당신 같으면 아기 낳겠느냐?"는 비아양만 날아온다.

귀농귀촌지원도 마찬가지다. 타 도시에서 영천으로 귀촌하면 정착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비 등은 모두용자 지원이다.

지난 15일 부시장이 지역 한노총 월례회에 참석해 기업에서 영천주소 갖기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여기에 한 시민은 "주소를 옮겨와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없는데 애써 가족과 함께 옮겨올까요?"라고 반문하고 있다.

입으로만 그리고 공무원만 뒤통자치는 캠페인은 더는 불필요한 시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지역에 맞는 인구감소 원인을 정밀진단하고 지역발전엔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부터 해야 한다. 세대별, 지역별, 성별, 분야별,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한 때다.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것도 주문한다. 알뜰한 사랑발림으로 그것도 타 지자체가 하니 마지못해 행하는 시책은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안 된다. 서울인구 절반을 빼와도 국가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깟 돈 몇 푼으로 인구늘리기를 강요한다면 지자체마다 자칫 현대판 인신매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도시 전체 사활이 걸린 총체적 문제다. 현 자치단체의 인구는 해당도시의 위상과 경쟁력은 물론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예산배분 결정에도 절대적 기준이 된다. 입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에 영천시의 진정성을 기대한다. 시민들은 영천시의 거짓된 입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원한다.

전국 최초경북청년 CEO 단독매장 구축
홈플러스에 경북청년창업제품 판매 플랫폼 확장

경북도 & 홈플러스 & 청년CEO



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사립실에서 홈플러스(주), 경북청년CEO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북청년 CEO의 창업제품 판

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CEO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품 판로활성화에 깊은 고심을 하면서 홈플러스(주)와 수차례 협의해 이뤄낸 결과이다. 지역과 유통대기업이 상호협력해 청년들에게 제품판매장을 조성한 이상적인 첫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주) 북동점(서울시 양천구, 지

하1층)에 위치하는 경북청년CEO매장은 14평 규모로 별도의 상품포관창고도 확보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전국 대도시(7대 광역시) 중심 판매 플랫폼 구축, 청년창업 판매장 확대 지속 협력, 청년CEO의 마케팅강화를 위한 홈플러스 전문유통인력 재능기부 등이다. 향후 홈플러스 전국 70여개 우량점포 특판행사 개최시 경북청년CEO제품 우선참여를 위한 상호협력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경북청년CEO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진희(호두와 나무 대표)씨는 호두가공식품 판매로 연매출 1억원 상량의 판매를 올리고 있는 김천의 여성CEO이다.

김관용 지사는 "경북청년CEO 창업제품판로 확보, 청년CEO를 활성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홈플러스 서울 북동점을 기반으로 전국 7대 광역시에 경북청년CEO제품 판매공간을 점차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우리지역 우리신문 영천신문 등록일자: 2011년 11월 16일 등록번호: 경북대01416 발행인: 박중운 편집인: 이용기 인쇄인: (주)중앙일보 취재부: 338-7100 광고부: 332-2400 FAX: 335-6600 구독료: 1년 4만원 3개월 1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아사동 보목2길 3 E-mail: licjg4@hanmail.net 게재번호: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날씨어때 18일 맑음 15°C ~ 28°C 19일 맑음 13°C ~ 29°C 20일 구름조금 17°C ~ 27°C 21일 구름조금 11°C ~ 28°C

다산한의원

개원 9월 12일



원장 한성협




경북 영천시 역전로 52 (완산동)
T. 054) 338-8891

진료안내

통증클리닉 / 비만클리닉
성장클리닉 / 소화클리닉
보양클리닉 / 갱년기클리닉



건강을 생각하는
다산기본코스

- ▶ 정형외과
관절염, 근육통, 허리통증, 목디스크, 안과 질환, 안압 상승, 안검외과,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 ▶ 진찰료 포함
진료비 별도 (진료비 포함)
- ▶ 침구치료(천침) **무료**
- ▶ 시술·약침·대입술
외과 수술 후 통증 완화, 근육통, 관절염, 안압 상승, 안검외과,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 ▶ 수리회기
외과 수술 후 통증 완화, 근육통, 관절염, 안압 상승, 안검외과,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 ▶ 멀티노출엑스
외과 수술 후 통증 완화, 근육통, 관절염, 안압 상승, 안검외과,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 ▶ 항동맥경화
외과 수술 후 통증 완화, 근육통, 관절염, 안압 상승, 안검외과, 안검하수, 안검상수, 안검중수

총 60분 권장 소요
비밀의 공간, 비싼 가격, 높은 진료비도

다산한의원

(주)대엘레미콘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로길 48
전화: 054)338-6010, 팩스: 054)338-6014

지역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레미콘' 제조 전문 기업
대엘레미콘은 늘 시민들과 함께 합니다.



계업회사





(주)대경레미콘 054) 955-7700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주)대영레미콘, (주)대영이스콘 055) 532-8620
경남 창원군 대지면 미산길 3-24

대경골재(주) 054) 955-7534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618-47

영(ONE)스튜디오 시스템!

은행-건축-계약상담을 한번에





영천 햇빛촌마을

전원주택 부지 분양

영천인근 최대규모 대단지

전용산책로까지 **3**분! 영천시청까지 **6**분! 이마트까지 **9**분!

분양 위치 | 경북 영천시 오미동 산 120-15번지 일대
분양 사무실 | 문내동 3-23 (영천중학교 앞) 문의 | 054) 331-0085

전체 조감도